■ 유럽집행위, 녹색 전자제품 환경성 강화

○ 유럽집행위원회 기업이사회는 전기·전자제품의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진작하기 위한 EU 지침의 두 번째 초안을 10월 2일에 발간하였음

- 대체로 첫 번째 초안에서 다루었던 분야에 비해 축소되고 요구조건이 일부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음
  - 기업이사회는 금년 봄에 환경이사회를 제치고 소위 '트리플 E'로 불리는 첫 번째 제안서를 서둘러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폐전기·전자제품 처리 제안서로 대체되었음
  - 초안에서는 제조업체가 설계에 대한 내부규제나 지금은 '환경보증체제(Environmental Assurance System)'라고 부르는 환경경영체제를 채택함으로서 디자인에서 환경을 보다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

○ 전기·전자제품의 디자인과 제조 분야를 나누어 다루었던 것을 디자인만으로 줄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수사적인 것에 불과함

- 반면에 제안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전기·전자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꿔 산업체에 주는 압력은 보다 강화되었다는 평가임
  - 부품, 재료의 선택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비 사용에 관한 규정 역시 요청사항이라기 보다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음
  - 하지만 EU의 에코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자동적으로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서 산업계의 이중 부담을 덜어 줌

○ 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랐던 산업계에서는 두 번째 지침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

- 산업계는 강제 규정화 되어 있는 일부 기본 요구사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
  - 환경유해 재료의 사용 금지나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, 오염 유발 방지 등은 업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함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